

오푸스데이 단장 몬시 놀의 11월 사목교서 (2018년 11월 4일)

“우리의 희망은 하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.” 오푸스데이 단장 페르난도 오카리스 몬시놀은 위와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11월 동안 우리가 관상해야 할 진리를 상기시켰습니다.

2018-11-8.

우리는 모든 성인 대축일과 그 다음 날에 있던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을 지냄으로써 11월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.

이 날들은 우리의 희망은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며(콜로새 1.5참고), 희망은 지상에서의 우리들의 발걸음을 밝혀줍니다.

이 희망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언젠가는 “새 하늘과 새 땅(베드로2서 3.13참고)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.

또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활동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.

호세마리아 성인께서 보증하신 것처럼, 우리가 이러한 매일 주어지는 활동들을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가득차서 수행한다면, “영원의 진동

(vibration of eternity)"을 얻을 것입니다.

또 다른 사실은 성인들의 통공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.

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서 절대 혼자가 아니라 는 것을 알게끔 얼마나 힘을 줍니까!

우리는 모두 함께 어디서나,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, 교회를 건설합니다. 구체적으로 오푸스데이 사업을 건설합니다. 우리는 서로 지지하며 도와줍니다!

이 점을 기억하며, 저는 특별히 어제 로마에서 부제로 서품받은 우리 성직 자치단의 34형제를 위해 기도해주기 를 청합니다.

페르난도

2018년 11월 4일. 로마에서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
opuseudei-danjang-monsinyolyi-11weol-
samogseogan-2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opuseudei-danjang-monsinyolyi-11weolsamogseogan-2/) (2025-7-25.)